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
	안용섭 전화: 031-888-9055, 이메일: aws6912@snu.ac.kr

배포일: 2024.5.22.(수)

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-도로교통공단, 자율주행차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경기도·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(원장 차석원, 이하 ‘융기원’)은 5월 21일(화) 도로교통공단(이사장 서범규)과 ‘자율주행 대중교통 정착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’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-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융기원 차석원 원장,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, 임경일 센터장, 김형주 박사, 도로교통공단 서범규 이사장, 이재훈 교육본부장, 장석용 미래교육처장, 배광수 자율주행연구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-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정착을 위한 공동 연구,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, 학문적·기술적 교류 등 자율주행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- 융기원과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시범운행 중인 판타G버스(판교에서 타는 G버스)의 시험운전자와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난해 실시한 바 있고,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판타G버스 안전관리 매뉴얼’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.
- 또한 2025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 예정인 ‘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

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교육' 을 진행할 공단 소속 강의를 대상으로 용기원 연구진이 자율주행 기술 동향, 사례 연구, 안전관리 등 자율주행 전문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.

- 차석원 용기원장은 “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도심을 함께 주행하는 자율주행 실증 연구를 지속해왔다”라며, “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노하우를 융합해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- 경기도가 지원하고 용기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19년 개소해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·운영하고 있으며,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인 판타G버스의 시범운행 사업을 맡고 있다.
- 한편 용기원은 2008년 개원 후 2018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 됐으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 사업, 경기도 반도체 육성지원 사업,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사업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차석원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.